

마지막 토론도 진흙탕... ‘오월정신 헌법 수록’엔 한목소리

이재명 “연임제·결선투표 도입”...김문수 “연동형 비례제 잘못된 것”
이준석 “대한민국, 병기창 육성”...권영국 “육사 중심 엘리트 파벌 해체”

‘3차 토론’ 정치 개혁, 외교·안보 주제

제21대 대선 유력 후보들이 27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잇따라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양극화 해소방안’, ‘정치개혁과 개혁’, ‘외교안보’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에 대한 각자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혁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면서 “첫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혁의 방향성을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급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권 후보는 “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이라면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김문수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정책과 비전 제시, 후보 간 공약 검증보다는 서로 혈투는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 독재를 한다고 말

한다”면서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이 후보와 김 후보를 모두 공격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굶신거리지만, 그 정치는 정작 청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 정치분야에 대한 후보들 간의 견해도 엇갈렸다.

권영국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해 묻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김문수 후보는 “위성정당을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거법 전반 개정 필요성을 내놔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육성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포괄적·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권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육사 중심 폐쇄적 엘리트 파벌 해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일반 법원 이관, 국군법집시령부 해체, 5년 내 한국형 모병제 정착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새미래, 공동정부 구성·즉각 개헌 합의 민주당 “내란 옹호·극우 후보에 나라 못맡겨”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연 누가 청산돼야 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내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

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동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3년 안에 마치고 이같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괴물독재국가 선봉대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이 아닌 새미래민주당에 있다”며 “80년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처럼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괴물독재 국가의 출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의 길에 새미래민주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내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춰보면 내란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 후보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K-이니셔티브 1천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이야 저를 청산하고 싶겠다”면서 “과연 누가 청산돼야 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엔 전 국무총리와 새미래민주당에 “더군다나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연합한다는 건 해괴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국민의힘 내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 뿌리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전날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성폭력 발언 책임지고 사퇴하라”

민주 선대위 “여성 신체 표현, 용납 안되는 폭력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이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후안무치가 곧 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의 발언이 어떤 제지도 없이 나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는 끔찍한 언어

폭력으로 국민을 모독했다”며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는 물론 의원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강태 수준의 작태”라며 “40대 윤석열, 젊은 구약, 유지한 구태, 갈라치기 전문가, 상대의 반발을 써먹으려 도발하는 알파한 잔머리,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의도공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 취소’ 신청 각하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

효화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규정한 기간 내에 규정한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 5. 14.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채권이 있는 분은 2025. 7. 30.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9일

세컨찬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3-22, 2층

공유서비스-08호(금남로47가)

청산인 김 기 은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 5. 2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써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025. 7. 28.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9일

주식회사 프레온

여수시 좌수영로 683-17(봉계동)

대표이사 백 철 우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